

삼화콘덴서 (001820 KS)

탐방노트: 변함없이 좋다.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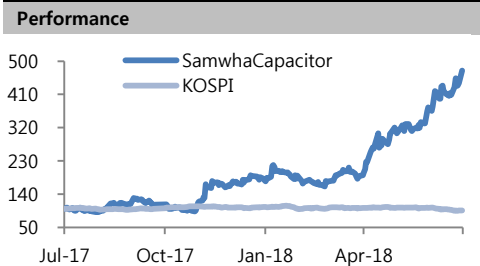
최보영 Equity Analyst
lucky0505@barofn.com
+822-6099-8505

	Not Rated
Target Price	-
현재주가	100,000 원
목표수익률	-

Key Data	2018년 07월 09일
산업분류	IT하드웨어 및 S/W
KOSPI	2,285.80

Trading Data	
시가총액 (십억원)	1,039.5
발행주식수 (백만주)	10.4
외국인 지분율 (%)	9.5
52 주 고가 (원)	101,500
52 주 저가 (원)	19,200
60 일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43.0

주요주주 (%)	
오영주외 3인	28.2
국민연금공단	8.6



Financial and Valuation Summary

Fiscal Year	2015	2016	2017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매출액 (십억원)	158.8	172.5	199.3	46.0	46.8	47.4	52.4	52.7	55.7
증감률 YoY (%)	(2.0)	8.6	15.6	6.4	11.0	24.8	13.2	14.6	19.1
영업이익 (십억원)	5.4	9.5	22.0	2.4	4.3	4.6	7.9	5.2	13.1
영업이익률 (%)	3.4	5.5	11.1	5.2	9.1	9.7	15.1	9.9	23.6
순이익 (십억원)	2.7	5.6	15.5	1.1	3.4	3.2	5.6	3.4	10.1
EPS (원)	256.7	538.7	1,493.0	101.9	324.3	303.9	540.8	324.0	967.0
EPS 증감률 (%)	흑전	109.9	177.2	25.7	135.1	402.0	127.0	218.0	198.2
P/E (x)	45.8	19.9	28.8	105.0	37.3	65.2	45.4	132.9	46.9
EV/EBITDA (x)	10.2	8.0	16.6	34.9	27.0	38.5	28.4	68.0	33.2
ROE (%)	5.9	11.3	25.7	2.0	6.2	5.4	9.0	5.0	13.6
P/B (x)	2.6	2.1	6.6	2.1	2.3	3.5	4.0	6.6	6.0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종합콘덴서 제조업체, 유래없는 MLCC 호황사이클 진입

- 1956년 설립되어 1976년 코스피에 상장한 국내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
- 스마트폰 개화에 따른 MLCC호황기 이후, 2010년부터 대규모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와 불황으로 부진한 실적 지속, 2015년 감가상각비 감소와 전방 수요 회복 및 전장 향 진입으로 매출 증가
- MLCC 업체들의 보수적인 증설투자와 일본 업체들의 전장향 대응으로 모바일 및 IT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부족 현상 심화, 2017년 3분기부터 제품 가격 상승 지속 중
- 매출 비중(1Q18) MLCC 53.2%, FC 11.5%, DCLC 7.1%, 기타 28.2%.

MLCC '19년 공급부족 완화? 우려는 이르다!

-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MLCC공급자 우위 시장을 예상하는데 일본 업체들의 전장 중심의 투자와 최근 더욱 길어진 설비업체의 증설 리드 타임(6개월~1년)에 근거
- 동사의 전장비중은 2017년 17%에서 1Q18년 20%, Delphi 초도물량 납품 및 Lear corporation 등 신규 업체 추가로 2019년 35%까지 지속적인 비중 증가 예상
- 추가적인 MLCC향 Capa 증설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

지속되는 실적 경신 기대

- MLCC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효과로 2019년 까지 지속적인 실적 모멘텀 기대
- 지난 7월 8일 무라타의 30% 가격인상 이후 다른 업체들의 추가적인 단가 인상 움직임 확산될 것
- 동사가 2018년 투자한 CAPEX 200억원은(매출기준 약 400억원) 3Q18 70%, 4Q18 100% 가동을 예상
- 분기별 실적은 기존 시장 추정치 상회 가능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